



X파일 - 진실을 밝혀라

‘X파일 - 진실을 밝혀라’
삼성 불법뇌물 공여사건과
안기부 불법도청 사건
진상규명을 위한 촛불문화제

언제 : 9월 9일(금) 오후 7시
어디서 : 삼성 본관 앞(시청역 8번 출구)
주최 : 삼성불법뇌물공여사건 등 정·경·검·언
유착 의혹 및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
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

리플릿 제작 **다함께** <http://www.alltogether.or.kr> 02-2271-2395

이건희가 주도한 정계·재계·언론·검찰 유착의 더러운 범죄가 담긴 X파일이 공개된 지 벌써 두 달이 지나고 있다. 그러나 이건희 등 X파일의 범죄자들은 처벌은 커녕 조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있다. 이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삼성장학생 과 '떡값' 검사 들 덕분에.

삼성홍보팀 보수언론들은 X파일 공개 요구를 '관음증' 이라고 비난한다.

이건희에게 "권력을 통째로 넘기" 다시피 한 노무현 정부는 '이건희 구하기' 에 앞장서고 있다.

'떡값 검사'를 폭로한 노회찬 의원의 말처럼 거대한 대중 행동만이 저 범죄자들을 처단할 수 있다.

9월 9일 삼성 본관 앞에서 거대한 정의의 바다를 만들어내자!

"15개(15억 원)는 괜찮는데 30개(30억 원)는 무지웠다" - 홍석현, X파일에서

"똥물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" - 전 미림팀장 공운영

"이제와서 97년 대선자금 문제를 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" - 노무현

"1995년 전두환·노태우 구속 투쟁에 버금가는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" - 노회찬



SAMSUNG